



계란유통 개선 시장흐름에 맞는 가격 결정이 필요

최근 들어 계란가격 결정에 있어 잡음이 많아지고 있는데, 점점 생산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시장흐름에 맞는 가격 결정 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계란가격 결정은 생산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여 농장 출하 가격의 기준이 되는 생산자 가격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으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나마 이 산지 출하 기준마저 사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범상 저축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어 자칫 혼선이 일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연간 약 90억개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산비 기준으로 약 6천억원 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에서 출하되는 계란가격은 가장 원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에 대한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란가격 결정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생산자들이 제이무리 적정가격을 요구하여도 매입하는 상인 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생산자들이 정해놓은 가격은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다. 생산자들은 이 계란가격 때문에 오래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생산자들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난가 결정에 있어서는 양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수혜자가 되고 있어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좀더 지나친 표현을 쓰자면 해놓은 밥 숟가락도 들지 않고 남의 손을 빌어 밥을 먹자는 식이나 다름이 없다. 채란양계인들은 과거로부터 너무 안일한 채로 양계업을 해왔다. 계란을 생산하는 작업을 권리 아닌 특권으로 생각하여 각종 특혜를 요구해 온 셈이 아닐까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데 이는 의타심이 강하기 때문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수입이 개방되었고, 동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마당에 내가 하는 사업 남이 알아서 챙겨줄 리가 만무하다.

과거와 같이 개인이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으레 정부나 협회, 또는 남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통할 리가 없을 것이다. 정당한 요구나 불합리를 해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양계인 모두가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일침이기도 하다. 왜, 내가 하는 사업을 남이 권리를 챙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양계인들은 깊은 반성과 아울러 책임 있는 경영의 자세를 보일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경제를 이해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계란출하시 난가결정의 문제점은 심각한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의지를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병아리 주문생산제 도입 검토의 필요성
유통비용 절감과 품질향상이 가능**

양계농가에서 닭을 키우는데 있어 병아리는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건,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건 간에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지는 병아리와 관련하여 입추할 때 솔직히 한 두 번 속을 썩혀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월 통계로 처리한다면 아마도 병아리에 대한 불만이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을 만큼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양계인들은 무신경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아리는 가격이나 품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병아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실용계업자들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종계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양계산업에 있어 병아리 생산하는 수준을 보면 닭고기과 계란의 생산 수준을 가늠한다고 할 정도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종계업자들이 병아리를 생산하는 수준이 낮아 실용계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용계 업자들의 구매수준이 낮아서 종계업자들이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와 같은 논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금일에 이르러서도 병아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양계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려면 우선 실용계 업계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즉, 실용계업계가 종계업계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우량한 병아리

생산은 요원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병아리 공급은 지금과 같이 부화장의 영업전략에 의한 판매가 아니라 실용계업자들이 사전에 주문을 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주문 생산 체제로 전환이 되면 배부율이 높아지고 영업비용이 감소하여 병아리 생산비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 합리적이라 할 수가 있다. 또한 병아리가 어느 부화장에서 오는지가 확실해져 품질 향상의 발판이 마련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란 판단이다. 병아리가격은 매년 내려가기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감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병아리 유통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참에 아예 주문입란제를 실시하지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물론 주문 생산제가 정착이 되려면 병아리를 구매할 농가를 대신하여 신용보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신용이 쌓이지 않아 불신이 큰데 주문해 놓고 분양시에 취소를 한다든지, 품질이 어떻고 하여 거래에 이상이 생긴다면 치명적인 손실이 양측에 발생하여 주문제도 정착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부화장도 종계관리부터 부화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원한다면 언제나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생산기반 불안은 안정 저해
아직도 기후에 영향받는 수준**

금년 여름도 매우 더웠다. 연일 35℃에 육박하여 인간과 그밖의 모든 생물을 괴롭혔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계절이 아니었나 기억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기온에 따라 양계산물의 생산량이 변화되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 양계산물 생산기반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여 수입이 개방된 시점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1994년과 1995년의 무더위 때에 피해가 커서 많은 개수를 하였다지만 아직까지도 기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생산성향상을 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반성과 또 다른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무창계사의 보급율이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약 40% 선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상승하거나 낮아지면 닭의 생산성은 평균 3~5%까지 낮아진다는 추산이다.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시설 면에서 다각도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잦은 전기화재, 낙뢰사고, 정전으로 인한 대량 폐사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만 보아도 불안한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매년 변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연의 변화현상을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또한 세계 곳곳의 기후 역시 변화가 심하여 언제 식량난이 닥쳐올지 모른다. 사료로부터 종계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4계절 변함없는 양계산물 생산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생산기반이 안정되면 다소 생산비가 높더라도 생존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생산기반의 안정은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양계**